

개 사업이 실시협약 체결 및 변경협상을 완료하였고, 내년 초쯤에는 그 동안 진행되어 온 협약변경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변경협약이 그 동안 부진했던 외국인 투자도 대구-대동고속도로 사업을 필두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시공 중이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사업이 완공되어 지난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민간제안사업의 급증도 2000년도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다. '99에 5건에 불과하던 민간제안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 추진 활성화에 힘입어 12월 현재 총 25건이 제안되었으며, GIS 등 대상사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1년 예산에 민간투자사업(도로부문) 지원을 위한 2,500억 원과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정부 출자 분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한 6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신뢰성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인프라펀드도 업무를 개시하였다. 201년부터는 SOC 투융자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의 1억불 출자로 역외펀드도 설립되었다.

지난 10월 26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됨으로써 미세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그 기본방향을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강화하고, 항상 논란이 되어 왔던 정부재정지원절차와 기준도 명확해질 것이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 개정(안)에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를 제출할 때,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토록 하여 보다 확실한 사업비 추정과 경제·재무성 분석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둘째, 민간제안서 접수 후 주무관청이 제안서의 형식요건 구비여부 및 법령 또는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셋째, 민간제안서 접수 일로부터 제안서를 채택하여 제3자 제안요청 공고를 하기 전까지 제안자 의사에 반하여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제안서 공고 시 제안자의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넷째,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서 평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하도록 함으로